

### 광주복지재단,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 실시

#### 화상회의 줌(ZOOM) 활용 온라인 비대면 교육

#### 강사·수강생 질의응답 등 실시간 소통과 참여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지난 달 23일, 24일 양일간 사회복지현장의 인사노무, 급여 등 실무자 8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가 꼭 알아야하는 노동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코로나19 감염증 및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에 따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

(ZOOM)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비대면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진행을 위해 강사와 수강생의 질의응답 등 실시간 소통과 참여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상시근로자 수와 노동법 적용범위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휴일 ▲휴가 ▲근로관계의 종료 및 퇴직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강의를 수강한 박진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씨는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며 어려움이 많다. 오늘 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됐다. 특히 비대면 강의로 진행한다고 해 과연 강의

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는데 강사님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강의해주어서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재단은 이번 노동법 교육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운영 또는 실무자 권의 등 다양한 노무관련 최신의 핫이슈를 정리한 노무정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군 신광면, 취약계층 화장실 미끄럼 방지매트 설치

#### 지역취약계층 50가구 설치

함평군 신광면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지역취약계층 50개 가구에 화장실 미끄럼방지 매트를 설치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동절기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사업은 신광면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문화 확산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전액 마련하여 추진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취약계층으로,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와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설치하는 정상우 신광면장을 비롯한 면사무소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 복지기동대 등이 도맡아 직접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경로당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등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면서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정상우 신광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각종 공모사



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 광주복지재단, 차세대 복지리더아카데미 실시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경력직 사회복지종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총 6차시(10월 21일과 28일,

11월 4일, 10일, 18일, 26일) 22시간에 걸쳐 '차세대 복지리더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복지리더아카데미'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실무경력 5년 이상인 선임사회복지사 이상 중간관리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향후 지역복지를 이끌어갈 경력직 사회복지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차세대복지리더로서 복지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기획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각 분야 전문가인 유병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표경흠 대표(비영리컨설팅 웰핍), 방대욱 대표(다움세대재단), 김재춘 소장(가치혼합경영연구소), 김미경 대표(비영리컨설팅 웰핍)를 초빙하여 진행됐다. 기동취재본부

### 제4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 개최

#### 400여명 참여

전남도 내 17개 장애인복지관과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남장애인권익옹호네트워크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STOP! 우리의 이야기 GO!'를 슬로건으로 제4회 전남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각 시군을 대표한 발달장애인 17명과 전라남도 발달장애인 등 400여 명이 참여한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는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무대에서 연설과 노래로 표현하는 장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사전 촬영 영상을 통해 발표내용을 심사했으며 영상 시청 및 시상 등 각 참가 기관에서 소규모로 개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이 직접 참여한 대회 슬로건 공모 역시 모두 온라인을 이용해 진행된 바 있어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진행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정환기자

### 곡성군, 드림스타트 30가구 대상 가족사진 지원

곡성군이 드림스타트를 통해 지난달 한 달동안 행복한 가족사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행복한 가족사진 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가족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던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30가

구를 대상으로 한다.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간 부모와 의 정서적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진행하게 됐다. 대상자들은 지정된 사진관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하면 된다.

사진관은 곡성읍과 옥곡면에 각각 1개소씩 지정돼 있다. 가정별로 액자 포함 대형사진 1매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곡성군이 지불한다. 곡성=양해영기자

